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루계 제24390호】주체102(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사 설

대건설의 힘찬 포성으로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자

오늘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되게 된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장구한 력사에서 이번과 같이 큰 규모에서 건설부문 일군들의 강습이 마련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번 대강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건설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건축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의의깊은 계기이다.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래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강습에서는 올해의 대건설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다음해를 건설의 최번영기로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취급하게 된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포성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력사를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데 이번 대강습조직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대강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당의 위업을 사상과 신념으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을 조금도 늦출수 없으며 더 많은것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의 새로운 주체100년대 력사가 크나큰 격동과 충격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백절불굴의 영웅적투쟁과 세기적인 비약으로 선군조선의 날과 달들이 흐르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가 젊음으로 약동하고 온 나라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로 들끓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선군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비약과 변혁의 시대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주체적인 건축발전사에 오늘처럼 건설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나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비약적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세계적인 표본이 되고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불과 몇개월사이에 솟아나고 온 나라가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박차고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그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승리이며 당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대건설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감으로써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대로 인민생활과 관련한 대상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을 건설부문의 총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조국땅 도처에 솟아나고있는 공원과 유원지들,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과 같은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세상에는 조선로동당과 같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자기의 본성으로 간직하고 창건의 첫 기슭에서부터 장구한 기간 오로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은 없다.

인민생활향상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전략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이번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마련되게 된데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와 함께 살림집건설과 문화정서생활조건보장을 비롯한 문제들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최단기간내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깃들어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온 나라에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칠때 우리 당의 인민생활향상전략은 빛나게 실현되고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비약적인 건설속도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적극적인 뒤받침을 전제로 한다. 우리 당이 올해에 그처럼 방대한 건설목표를 내세우고 제기일내에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은것은 건설부문과 함께 련관부문 로동계급,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다. 올해초 철강재증산과제를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결사의 의지를 안고 영웅적투쟁을 벌려 기한전에 수행함으로써 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력과 세멘트, 마감건재생산과 수송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련관부문들에서 타오른 생산적앙양의 불길로 하여 뜻깊은 올해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조국청사에 빛날수 있게 되였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돌진하는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가로막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대건설의 힘찬 포성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강한 자주정신과 혁명적신념의 거세찬 분출이다. 수십년동안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경제적토대와 잠재력은 대단하며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이번 대강습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적계기로 될것이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21세기의 걸출한 건축대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비범한 조직적수완, 불면불휴의 령도로 건설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멀고 험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고 력사적인 호소문으로 온 나라에 새로운 건설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설계와 시공, 마감건재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모든 건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인민군대를 앞세워 주체건축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건설부문에서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이번에 마련된 대강습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받들어 하루빨리 우리 조국을 존엄높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로 빛내이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의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거창한 시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마련해주시고 강습의 명칭으로부터 주제와 내용, 형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특출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고 당의 위업에 끌없이 충직한 천만군민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의 신심과 혁명적기세는 비상히 높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미래는 끌없이 창창하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사명감과 본분을 깊이 새기고 건설의 최번영기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령도업적은 강성국가건설의 초석이며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건축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여 나라의 건축발전의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는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주체건축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이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일으키며 사회주의락원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축사상과 령도업적은 건축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대백과전서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건축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많은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이 우리모두의 심장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이번 대강습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그 구현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건축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하나의 대상을 건설해도 주체성과 민족성, 사상미학적요구와 조형예술성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주체건축발전의 생명선이다. 올해의 거창한 건설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해나가는데 대비약, 대혁신의 비결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승리의 기치로 삼고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건설물을 하나 설계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리상과 포부가 깃들게 하며 살림집을 하나 일떠세워도 원수님의 의도대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나가야 한다.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를 잘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할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건설성과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건설의 최전성기를 최번영기로 이어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를 치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혁명적기질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당의 부름따라 대건설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시대를 격동시키고 세기를 주름잡는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겠다는 포부와 열정, 내 나라, 내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보석과 같이 삶을 빛내이려는 열렬한 애국의 의지가 우리모두의 정신세계로 되여야 한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시대적사명감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보람찬 대건설전투에서 영웅이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될 비상한 각오를 지녀야 한다. 점 하나, 선 하나, 벽돌 한장, 부재 하나에도 불타는 애국심을 담는 참다운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자기의 힘과 기술로 해제끼는 자력갱생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마식령속도》창조로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진취적인 사고관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단숨에의 기상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과 건재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 당이 펼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타오른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의 새로운 위훈창조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이번 대강습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건설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이번 대강습참가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건축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평양기초식품공장 최명희는 수십년간 작업반선동원으로 일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청진철길대 남강덕철길소대 선동원 오명철은 각종 선동자료 수천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전개하여 소대원들을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추동하였다.

대령광산 발파소대 황영진, 룡성탄공장 비육1직장 지정옥,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산하공장 자재공급과 강철옥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동연설, 해설담화, 노래보급 등을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안주시 상서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 선동원 장향순은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로 불러일으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산하농장 제1작업반 3분조 리영실, 량강도농촌경리위원회 산하농장 제6작업반 2분조 박철옥은 맡은 일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선동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이들은 실효성있는 선동활동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집단안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고 분조원들모두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선동원들은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활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인터네트에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말레이시아, 기네에서 회고모임, 강연회, 사진, 미술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1월 3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의 기치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사진들과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위원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전변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펼치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바쳐오신 김정일각하의 한생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말레이시아 돔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은 2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 세계 수억만인민들이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추모행사들을 거행한데 대하여 상기하였다.

기네 기꼬쁘레스그룹 비티피 건설회사 부사장은 김정일각하의 서거는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손실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로선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그이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영원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나이제리아단체가 11월 25일과 2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는 《김정일령도자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품으로 지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다지시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정일,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신것이다.

20세기 말엽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준엄한것이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은 사회주의영상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비렬한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와 함께 사회주의보루로 남아있는 조선을 압살하는데 총공세를 집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명시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또한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기 위해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이 7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건축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태양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이 땅우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여 인류건축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인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자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궐기모임이 7일에 진행되였다.

리일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대학당비서 리종현의 보고에 이어 총장 배동일, 부총장 홍성룡, 건축대학 학장 량봉진, 학생 김금석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을 찾으시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교직원, 학생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과학전시관, 건축설계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대학이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의 형성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창작설계하여 권위있고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의 위력을 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창립후 지난 60년간 대학이 거둔 성과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부강조국건설에서 대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유능한 건축창작집단, 믿음직한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인 평양건축종합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라는 뜻에 넘치는 평가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혜로운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학에 주체건축발전관을 잘 꾸려놓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강화발전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겠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이고 특전이며 우리 당의 주체교육령도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라고 말하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나라의 건축인재양성과 주체건축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사변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희세의 천출위인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 건재부문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며 종합적인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여 건축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건축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워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건축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제기되는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로동당시대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는데서 맡은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5월

←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서해갑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9월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10월

광복거리준공식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8(1989)년 5월

단천항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7월

새로 건설된 룡림군문화회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8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2월

☆

☆ ☆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우리에게는 보기 좋고 쓸모있고 아담하고 튼튼한 사회주의적건축물이 요구됩니다.》 김 일 성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여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끓게 하였다.

위대한 로동당시대와 선군시대에 조국땅우에 솟아오른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건축에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이 그 중심에 놓인다.》

만고의 항쟁사를 엮어가시던 항일전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생활터전문제를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장차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야 하는 그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일군들에게 거랑촌, 빈민굴로 알려져있는 저 가난한 마을사람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결연히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앞장에 서시여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통강개수공사를 첫자리에 놓으신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건설은 인민을 위한 건설,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건설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힌 력사적사변이였다.

일제가 15년간으로 잡고도 끝내 시작할수 없었던 보통강개수공사가 단 두달동안에 훌륭히 마무리된것은 인민의 숙원을 푸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품이 들어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이 안아온 기적이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창조와 건설의 모든 년대기들에서 언제나 인민을 위해 건설이 있고 건축이 있다는 드림없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인민대학습당도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여 수도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수행한 일군들에게 남산재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무슨 건물을 앉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자리가 우리 수령님께서 아끼고아껴오신 자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일군들모두는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12월 중순 어느날 일군들과 남산재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평양에 이젠 문화궁전도 있고 학생소년궁전도 있으니 여기에는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고 인민들이 공부하게 하자고, 그러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앞을 바라보면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옆으로 돌아서면 모란봉의 절경과 문수벌일대가 한눈에 안겨오는 남산재는 명당중의 명당이였다.

하기에 우리 혁명의 력사적인 년대들에 수많은 건설계획도들을 토의하시면서 그 남산재만은 굳이 남겨두게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느해인가 한 설계일군은 그 좋은 자리에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청사를 무게있게 들여앉힐 설계를 만들어 어버이수령님께 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설계안을 대번에 밀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엇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 정부청사를 앉히겠는가, 도시중심부에는 정부청사가 아니라 인민들이 많이 쓰는 공공건물을 두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드넓은 홀을 이윽토록 둘러보신 장군님께서는 녀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산원인데 무엇을 아낄것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건물안에 척 들어서기만 해도 궁전맛이 나게 중앙현판홀에 보석주단을 잘 만들어 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일군들모두가 크나큰 감동에 젖어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석이 아무리 귀해도 이런데 쓰는데는 아깝지 않으니 꼭 보석주단을 깔아주자고 거듭 간곡히 말씀하시고나서 산원은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당에서 직접 맡아서 우리 녀성들과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건물인것만큼 조금도 허술히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되여 솟아난 건축물이 어찌 인민대학습당 하나만이랴. 인민의 오랜 꿈을 꽃피우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산업건물들, 도로와 명승지, 유원지들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 얼마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의 건축을 철두철미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적인 건축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주체68(197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산원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다.

기본공사를 끝내고 하늘높이 웅장하게 솟아난 산원을 만족한 표정으로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물내부를 돌아보시려 중앙현판홀에 들어서시였다.

평양산원이 훌륭히 완공되였을 때에는 사실 수령님께서 한 10년전부터 세계에서 으뜸가는 산원을 지어주자고 여러번이나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이 간절한 념원을 오늘에야 비로소 풀어드렸다, 이제는 수령님의 구상이 실현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기쁨과 만족의 미소를 지으실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기쁨은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령도자들께서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신 평양산원,

지난날 벼짚을 깔고 몸을 풀던 우리 녀성들이 절세위인들의 기쁨과 만족속에 보석주단을 깐 산원에서 애기를 낳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집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건축사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는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다.

창전거리, 류경원, 릉라인민유원지,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노래와 함께 길이길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숭고한 인민사랑이 젖하는 이야기

앞당겨진 착공날자와 늦추어진 착공날자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갓 풀리기 시작한 얼음때문에 대동강의 나루배가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보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평양시 도시중심부와 동평양지구를 련결하는 다리는 대동교뿐이여서 배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대동교로 에돌아다니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리건설을 한시도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몸소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다리위치까지 정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옥류교건설은 원래 착공날자보다 3년이나 앞당겨 시작되게 되였다.

천리마거리건설이 예정보다 석달이나 늦게 시작된데도 뜻깊은 사연이 있다.

주체59(1970)년 1월 중순 어느날 전화로 평양시의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철거되는 세대들이 겨울에 이사를 하게 하면 곤난한 점이 많을것이다, 지난해에 시작된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한 다음 거기에 철거지대 사람들을 옮기고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앞당겨진 착공날자와 늦추어진 착공날자, 진정 이 땅에 일떠선 창조물 하나하나에는 인민에 대한 그렇듯 크나큰 사랑의 이야기가 비껴있는것이다.

늘어난 관성렬차 선로길이

한장 또 한장…

유희기구사진첩을 마지막장까지 보시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 첫장을 펼치시였다.

첫장에는 관성렬차가 찍혀져있었다. 관성렬차선로의 길이가 얼마인가고 하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한 일군은 1 350m라고 대답을 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것은 얼마인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1 350m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수자를 몇번이나 입속으로 외우시고나서 세계적으로 제일 긴것이 1 350m라고 해서 그이상 더 크게 해서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이왕이면 관성렬차의 선로를 좀더 길게 하여 1 500m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1 350m와 1 500m!

이 대비적인 수자속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그때는 주체65(1976)년 11월 하순이였다.

새로운 시대어-선 편리성, 후 미학성

지난해 5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식당을 돌아보실 때였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 의자에 앉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도 앉아보라고 이르시였다.

의아한 심정을 안고 의자에 앉아본 일군들은 그제서야 까닭을 알게 되였다. 의자등받이와 앉는 면사이의 각도가 직각이다보니 불편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이런데 앉아 식사하게 되면 몹시 불편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앞으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게 선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선 편리성, 후 미학성!

그것은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시대어였다.

본사기자

최 번 영 기 에 로 !

◇ 거창한 창조의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올해는 완공된 건설대상이나 건설속도에 있어서 우리 조국력사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아로새긴 건설의 최전성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며 솟구쳐오른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실력, 비범한 령도예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올해의 건설전투과정에 건설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위대한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사회주의문명국을 얼마든지 빠른 시일안에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 더욱 휘황한 건설의 최번영기가 우리를 부른다.

지금 우리모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조국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비상히 책임적이고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향한 조선의 설계도는 나날이 새로와지고있으며 더욱 번영할 래일에로의 전진속도도 계속 빨라지고있다.

가까운 몇해안에 평양시와 각 도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약동하는 기상으로 우리 조국의 력사에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나게 아로새긴 올해는 주체건축의 눈부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주는 비약의 발판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된 건설성과속에는 참으로 귀중한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이제 조선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며 또 어떤 거창한 창조물들이 이 땅우에 수풀처럼 일떠서는가 하는것을 세계는 현실로 보게 될것이다.

◇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최전성기를 최번영기에로 이어나가야 한다.

건설에서 인민생활과 직결된 대상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나가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결합시켜야 한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살림집,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체육문화오락시설들을 잘 꾸려야 한다.

일단 과업을 받으면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해제끼는 인민군군인들처럼 립체전을 벌려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 시공, 건재를 잘 결합시켜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그 기능적요구와 지역적특성에 부합되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세계적인 건설성과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을 창조해야 한다.

건설의 모든 공정에서 최신설계기술, 앞선 공법과 기술, 선진재료 등 첨단건설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모두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선봉투사가 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사회주의강성조선의 앞길에 주체의 봉화 환히 비친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 단 상 ◎

천 리 마

우리는 천리마동상앞에 서있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서 늘 보아왔지만 이해의 12월에는 더욱 류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는 그것이 일떠서던 당시의 시대상이 비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리마동상에서 흘러간 력사만을 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전후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던 빈터우에서 비상한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솟구쳐오른 내 조국의 모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의 주인들인 우리 인민들의 모습이였다.

세상을 놀래운 평양속도와 함께 이 땅우에 현대적인 건축의 새 력사가 펼쳐진 평양번영기의 하루하루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려온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워주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천리마의 주인공들, 바로 그들의 후대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그렇다.

《마식령속도》!

폭풍안고 비약하는 내 조국의 위용이 저 억세인 나래에 실려있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천만군민의 용용한 기상이 저 무쇠발굽에 그대로 비껴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더욱 새로운 목표를 향해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비약적인 속도를 과시하며 우리의 천리마는 지금 이 시각도 하늘높이 날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7일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격동적인 시기에 전례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는 력사적인 대강습에 참가하게 된 건설부문 일군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숙소마다에 넘쳐났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곽범기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인식내각부총리, 당, 무력기관, 내각의 일군들이 숙소를 찾아 대강습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주체의 건축사에 리정표로 되는 뜻깊은 대강습에 참가하는 건설부문 일군들을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문명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대강습기간 당의 독창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강습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박 봉 주 총 리

국가과학원사업 현지료해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창립 61돐을 맞이한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과학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여러 첨단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경제적효과성, 도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전, 두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하였다.

이어 은정과학지구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가지였다.

총리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과학원이 나라의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고 하면서 높은 과학기술연구성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은정과학지구를 주체적인 과학연구기지, 정보기술, 나노기술, 에네르기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개발 및 보급기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세 계 를 굽 어 보 며 창 조 하 라

만수대창작사 도안창작단 실장 공훈예술가 김영호동무

지난 7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상앞에 드리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테프를 끊으시자 경축의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개관식장은 활화산마냥 끓어번지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우러르는 만수대창작사 도안창작단 실장 김영호동무는 전승기념관을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형성안, 도안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가슴가득 차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생산률과 건설률은 도안을 선행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설계도 하고 생산과 건설도 조직하여야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데서 나서는 도안, 형성안창작사업에 참가하였던 김영호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새로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서 터전을 잡아주신 소식에 접한것은 지난해 여름이였다.

그날 김영호동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당조직의 지지밑에 기념관의 외부형성안창작에 달라붙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을 친히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에는 대원수님들의 위대성과 반제혁명사상으로 일관되고 건축미학적,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념관의 외부형성안은 어떻게 되여야 하겠는가.)

그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며 밤이 가는줄을 몰랐다.

그러한 때에 건축부문의 한 일군이 그를 찾아왔다. 그 일군은 낮에 밤을 이어 전투가 벌어지는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념관을 기존건축형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 없는 국보적인 기념관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외부에서부터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김영호동무는 흥분된 심정을 애써 누르며 그동안 완성한 여러 형성안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따져보았다. 그는 기념관의 외부를 조각장식, 벽화장식 등으로 집약화하고 예술적으로 부각하여 형성안을 더욱 완성하였다.

며칠후 김영호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외부장식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도안창작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으랴.)

얼마후 세계적인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는 기념관건설에 참가하게 된 그는 더 높은 창작적열정을 안고 도안, 형성안창작에 달라붙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홀에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였다. 많은 창작가들이 그 형성안창작에 달라붙었다.

김영호동무는 어떻게 밤이 지새고 새날이 밝아오는지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영호동무가 창작한 중앙홀립상모심형성안을 보아주시고 그대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에는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을 모신 배경에 대한 형성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배경으로 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념관의 내부현관홀의 출입구를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에도, 기념관의 정문에 영웅메달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였을 때에도 그는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현관홀출입구형성안, 기념관정문 좌우영웅메달부각장식도안을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하고 지휘관홀형성안도 손색없이 창작하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린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전 그저 건축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받드는 길에 지혜와 열정, 온넋을 깡그리 바치며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한몸 다 바칠 생각뿐입니다.》

김영호동무는 제대군인이다. 군사복무의 나날 도안창작에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한 후 희망대로 산업미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피타게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학시절에 전국적인 산업미술전람회에 《용접봉사로보트도안》을 내놓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도유망한 도안창작가로 소문을 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만수대창작사에 배치받은 그가 처음으로 맡은것이 3대혁명전시관 총서관 출판보도부문의 형성안창작이였다. 그는 창조적사색과 고심어린 탐구속에 형성안을 창작한 다음 그것을 훌륭히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형성안창작과제를 맡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전투를 벌리군 하였다.

신천박물관을 개건할 때였다. 그는 현지에서 침식하면서 형성안으로부터 140여건의 제작도면을 완성함으로써 신천박물관을 훌륭히 개건하는데 이바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정열이 불같은 그에게는 크고작은 창작대상이 따로 없었다. 기념메달도안, 상점마크도안, 양복점간판도안, 유희장의 유희기구간판으로부터 모란봉극장 무리등도안, 동평양대극장 무대면막도안 그리고 어느 한 국경도시의 친선다리문주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일단 창작에 달라붙으면 낮과 밤을 몰랐다.

특히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형성안들을 비롯하여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더욱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한 형성안들을 창작할 때에는 현장에서 밤을 밝히다싶이 하며 일했다.

인민무력부에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면서 동상모심형성안 창작과업을 맡았을 때에는 불타는 충정을 안고 온넋을 다 바쳐 지대형성안, 기단형성안, 록지형성안, 교양마당형성안, 원림록화형성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는 도안, 형성안창작에서 만족을 몰랐으며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았다.

-세계를 굽어보며 창조하라. 바로 여기에 건축의 영재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참답게 받드는 길이 있다.

이것은 그가 문수물놀이장에 모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릅상모심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 영원한 삶의 좌우명이다.

오늘도 김영호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로운 기념비적창조물의 도안, 형성안창작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로 주 봉

김 영 호 동 무 (가운데)

돌격전의 앞장에 우리가 서자

121호림업련합기업소 림업건설대 일군들과 로동자들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 림업건설대가 조직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이다.

그때부터 건설대는 련합기업소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언제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초, 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모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건설대 대장 최성철동무의 기분은 흥그러웠다.

건설대로 들어선 그는 대장을 기다리고있는 초급일군들에게 건설대가 로동자정양소건설을 맡은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로동자정양소를 건설할 과업을 우리 건설대에 맡겨주었다.

수백㎡에 달하는 로동자정양소를 우리는 두달동안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 할수 있겠는가.

그러자 책임기사며 작업반장들이 기세를 올리였다.

《우리야 림산작업에서 제기되는 물동건설을 비롯한 어려운 구조물공사를 단숨에 해제끼군 했는데 정양소건설을 두달동안에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건설대는 조직된 첫날부터 련합기업소아래 림산사업소들에서 제기되는 물동건설을 비롯한 구조물공사를 기본으로 해왔다.

룡하림산사업소지구의 30만㎥ 저수능력의 물동을 건설할 때에는 혈치 않았다.

4월초였으나 아직 강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얼음을 깨내며 가물막이전투를 벌리였고 끌내 두달 남짓한 기간에 물동을 건설하고야말았다.

그후 그들은 부전림산사업소지구의 5만 5 000㎥저수능력의 물동, 삼수림산사업소지구의 3만 5 000㎥저수능력의 물동건설도 짧은 기간에 해제끼여 통나무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련합기업소청사며 산업병원 그리고 남새온실, 화초온실 등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거의나 없었다.

그렇게 련합기업소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일감을 도맡아 해제끼면서도 건설대의 사무실들과 목재가공실, 창고, 차고, 작업반휴계실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올해는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야 할 해이다. 로동자정양소건설을 40일동안에 무조건 끌내자!

건설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런 의지를 안고 떨쳐나섰다.

다음날 그들은 현지에 도착하기 바쁘게 전투에 달라붙었다. 작업반별경쟁속에 립체전이 벌어졌다.

로탄청년림산사업소와의 련계밀에 통나무가 도착하자 낮에 밤을 이어 제재전투가 벌어졌다.

기초굴착과 건물축조전투와 함께 골재운반전투가 벌어지고 기와생산기지가 꾸려지기 바쁘게 질좋은 세멘트기와가 생산되였다.

그러한 불꽃튀는 전투속에 40일만에 그들은 끝내 로동자정양소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바로 그러한 때에 레년에 없는 큰물로 자서림산사업소마을이 피해를 입게 되였다.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여 여러동의 살림집을 일떠세웠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떼목을 묶는데 필요한 타리개가 딸리여 통나무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다음날 산판으로 들어가 타리개감생산전투에 달라붙었다.

20여일동안에 2만여개의 타리개감생산을 끝낸 날 저녁이였다.

대장 최성철동무는 작업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는 이제 건설대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큰물피해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림산작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해 여간 안타까와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나서자.

작업반장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림산작업소들에 나가 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러던 지난 10월말이였다. 200㎥의 통나무를 생산하여 토장까지 끌어내리던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 버섯생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들은 다음날 산판으로 들어가 타리개감생산전투에 달라붙었다.

20여일동안에 2만여개의 타리개감생산을 끝낸 날 저녁이였다.

대장 최성철동무는 작업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는 이제 건설대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큰물피해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림산작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해 여간 안타까와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나서자.

작업반장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림산작업소들에 나가 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러던 지난 10월말이였다. 200㎥의 통나무를 생산하여 토장까지 끌어내리던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 버섯생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버섯생산기지건설도 우리가 맡자.

그들은 그날부터 전투를 벌리여 460여㎡에 달하는 버섯생산기지건설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였다.

건설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뜻깊은 올해의 첫아침부터 돌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온 한해를 이렇게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고있다.

본사기자

그가 안고사는 행복

철도성 아래단위 로동자 주예경동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행복은 애국에 있다.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해온 주예경동무도 바로 그런 행복관을 지닌 녀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주예경동무의 가슴속에 애국의 마음이 싹트고 깊이 자리잡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찌기 부모를 잃었다. 태여난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던 때인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느날 미제원쑤들의 폭격에 아버지를 잃었고 12살 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당에서는 그를 남부럽지 않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었고 조선로동당원으로, 철도성의 일군으로 내세워주었다.

그는 늘 딸인 예경이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조국의 품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니. 크거들랑 조국에 보탬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위해 늘 밤잠도 잊고 뛰여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주예경동무는 세대의 임무를 자각하였고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가다듬게 되였다.

그는 처녀시절부터 초소의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그 나날 초소의 병사들은 주예경동무를 두고 우리 누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그러던 어느날 기쁜 마음으로 초소에서 날아온 편지를 펼쳐보던 주예경동무는 깜짝 놀랐다.

순간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다.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있었다.

《…누이, 류경천동지는 참 좋은 지휘관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같은 누이가 우리의 맏형이나 다름없는 지휘관동지와 한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주예경동무는 누가 불세라 서둘러 편지를 품에 넣었지만 머리속에서는 한 군관에 대한 생각이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아직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 군관이였지만 병사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지휘관이라면 필경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의 속생각을 띄여본 그의 어머니도 우리 사회에서 총친 군관이상 더 훌륭한 대상자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여 주예경동무는 군관의 안해가 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높은 복무정신이 없다면 군관의 안해라고 말할수 없다.)

주예경동무는 우리 시대 녀성의 가장 소중한 부름을 심장에 새겨안고 군인들을 적극 원호하였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초소길에 새겨가던 그의 발자국이 마식령과 세포등판에로 끝없이 이어져갔다.

그는 가정에서는 알뜰한 주부, 기특한 딸이였고 사회에서는 혁신자, 존경받는 군인가족이였다. 주예경동무의 가슴속에는 삶의 희열과 보람이 한껏 넘치였다. 하지만 그는 만족을 몰랐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소리가 심장을 쿵쿵 울리군 하였고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게 하였다.

어느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진행되고있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였다. 그는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갔다.

수백리 먼길을 달려오고도 건설장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주예경동무의 그 마음에 돌격대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주예경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진행되는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와 땀을 흘리는거야 응당하지 않습니까.》

얼마전 그는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오늘도 주예경동무는 조국보위와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삶의 하루하루를 빛내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일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

한 로동자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평성시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시안의 인민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갈 불같은 애국의 일념안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무역성 아래단위 부원 한영민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서 응당 평양시민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다.

철도성병원 의사 김인걸동무 역시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뜨거운 지성을 담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으며 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 설계원 리경희동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마음으로 많은 지원물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식료일용공업성 아래단위 로동자 김은희, 김순영, 평성시당학교 로동자 조훈동무들도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고무하고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지난 기간 말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해온 문덕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고있는 박향미동무도 발전소건설을 힘껏 지원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소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애 국 의 일 념 안 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갈 불같은 애국의 일념안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무역성 아래단위 부원 한영민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데서 응당 평양시민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그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다.

철도성병원 의사 김인걸동무 역시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뜨거운 지성을 담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으며 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 설계원 리경희동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마음으로 많은 지원물자들을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식료일용공업성 아래단위 로동자 김은희, 김순영, 평성시당학교 로동자 조훈동무들도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고무하고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지난 기간 말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해온 문덕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고있는 박향미동무도 발전소건설을 힘껏 지원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소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영국을 방문하였던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영국을 방문하였던 김을호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에짚트아랍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에짚트아랍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에짚트아랍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박춘일동지가 임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보내여온 진귀한 선물식물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고있다.

-중앙식물원 선물식물온실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독자의 정지

고 마 운 의 료 일 군

저는 룡성구역 룡성2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저의 건강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김만유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박은희선생님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박은희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전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던 저는 병으로 제대된 후 여러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속병까지 겹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원인모를 급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김만유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였을때 박은희선생님은 자진하여 저의 담당의사가 되여주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주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어할세라 토끼곰, 닭곰을 비롯한 구미에 맞는 음식도 해오고 치료대책도 세워가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은희선생님은 제가 퇴원한 후에도 먼곳에 있는 저의 집에 자주 왕진을 오기도 하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보약과 식료품들을 내놓으며 고무도 해주군 하였습니다.

박은희선생님이 9년간 저를 위해 기울인 그 모든 정성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적겠습니까.

한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바치는 그의 뜨거운 정성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이런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우리 영예군인들은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습니다.

룡성구역 룡성2동 주 광

우리 장군님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을 두고

행복이 무르익어갈수록, 인민의 꿈이 하나둘 현실로 꽃펴날수록 못 견디게 그리워 찾게 되는 품이 있다.

-아, 어버이장군님!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금시라도 귀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인민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며 오늘은 좀 남보다 못할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다고, 우리 인민은 순간의 번화가가 아니라 영원한 번화가를 창조하고있다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말씀이.

우리 장군님의 그 리상, 그 념원, 헌신의 한평생을 비껴안은 사회주의번화가들이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다.

사회주의문명의 거대한 화원에 피여난 한떨기 꽃과도 같은 문수지구의 천지개벽!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도 여기 문수지구에 있고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도 이곳에 나란히 자리잡고있다. 전설속의 룡궁을 방불케 하는 문수물놀이장도 문수지구에 터를 잡고 희한하게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를 들으시면 제일 기뻐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 그리움의 이 12월에 아뢰고싶은 소식 많고 많건만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활짝 꽃핀 문수지구의 천지개벽부터 아뢰고싶어 붓을 들었다.

문수지구,

사람들은 아마 문수지구가 해방전 일제침략자들이 닦아놓았던 비행장자리가 있던 곳이고 사방에 물웅덩이와 잡초무성한 둔덕이 널려있던 인적드문 땅이였다는것을 다는 모르고있을것이다. 그처럼 원한깊고 버림받던 땅이 파연 언제부터 행복의 보금자리로 빛을 뿌리였던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가닿은 그때부터였다. 한적하던 이곳에 인민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친히 연필로 종이에다 문수거리의 주요도로와 구획들을 그으시며 사색을 거듭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있어 문수지구, 여기에 인민의 새 거리가 일떠섰다.

새로 지은 아빠트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동무들도 저 웃음소리를 듣습니까, 그전엔 개구리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문수벌에 오늘은 현대적인 도시가 일떠서 저렇게 창가마다에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라고 하시며 크나큰 희열에 넘쳐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금시라도 울려올듯싶은 문수지구, 바로 여기에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과 같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 고려의학과학원, 평양산원 등 의료기관들이 일떠서게 된데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

만수대언덕에서 바라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듯싶고 모란봉에 오르면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처럼 정답게 안겨오는 곳, 배를 타고 바라보면 푸르른 대동강반에 마치 동해의 총석정을 그대로 옮겨놓은듯 하여 황홀경에 잠기게 하는 곳,

하지만 문수지구의 이 절경, 이 자랑도 이제는 옛말로 되였다.

오랜 세월 머리속에서 환상으로만 그려보던 문명의 새 화폭이 문수지구에 펼쳐졌다.

문수물놀이장이 문을 연 때로부터 불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만도 로동당만세소리가 절로 터져나오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자연채광으로 하여 맑고 푸른 하늘이 그대로 지붕이 된듯 한 실내 물놀이장은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비단이 필필이 늘어진듯 갖가지 물놀이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야외물놀이장은 또 얼마나 눈부신가.

지금은 겨울이여서 사람들로 늘 흥성이는 곳은 실내물놀이장이다. 수영수조, 초음파수조, 파도수조 등 수조의 이름만 외워보아도 가슴흐뭇하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분도 좋지만 여러가지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고 소금한증, 마노한증 등 건강에 좋은 한증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 또한 만족스럽다.

어디부터 먼저 가볼것인가, 보이는것마다 황홀경이여서 한동안 이렇게 망설이다가 발길이 가닿는 곳에 먼저 풍덩 몸을 잠그였다는 문수지구에 사는 한 로동자의 말이 참으로 인상깊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문수지구에서 살고있습니다. 내 어릴적에 자주 듣던 소리가 뭔지 압니까. 해방전 거적때기집이 물란리에 떠내려갈가봐 개구리울음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조이군 했다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란리가 다 뭡니까. 바다물까지 끌어다 행복의 물의 세계를 펼쳐준 어머니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건설중이던 이곳 물놀이장을 찾으시여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문수지구가 천지개벽된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렷이 안겨든다.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을 못내 그리시며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문수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형성안만 해도 110여차례나 지도해주시고 건설장을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찾으시던 그 하많은 날과 날들의 사연을 어찌 이 글에 다 담을수 있으랴.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가시는 길에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과 헌신으로 주옥처럼 다듬어주신 고귀한 충정의 산물,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하기에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일먼저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앞에서서 삼가 이렇게 아뢰인다.

(위대한 장군님, 기뻐하십시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사회주의만복이 활짝 꽃펴납니다.)

문수지구에 문수물놀이장만 일떠섰던가.

사철 스케트를 탈수 있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민야외빙상장도 여기에 일떠섰다. 로라호케이장, 기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로라스케트장도 꾸려져있어 젊은이도 늙은이도 앞을 다투어 이곳을 찾는다.

류경원은 또 어떠한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 여기에 거울처럼 비끼고있다.

한겨울에도 더운 김을 뿜어올리며 손님들을 어서 오라 부르는 류경원의 꽃꽂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눈가에 뜨겁게 어려오는 화폭은 무엇인가.

아직은 란간도 완성되지 않은 계단을 오르시며 먼지가 서려있는 류경원의 매 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그 모습이 어려와 우리 가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렇듯 뜨거운 사랑이 인민야외빙상장이며 로라스케트장에도 어려있으니 문수지구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그대로 비단우에 꽃을 수놓듯 사랑에 사랑을 더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전하는 거울과도 같다.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올해에 새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함께 이름만 불러보아도 유정함과 친근감을 자아내는 두 병원이 또 새롭게 일떠섬으로써 문수지구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구상하시였던 건설대상이였다. 너성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의 오늘의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은 마냥 뜨거워진다. 정녕 우리 너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력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 너성들에게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층마다, 입원실마다, 치료설비마다 속속들이 미쳐있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이다. 첨단급의 값비싼 의료설비들은 물론 입원실에 놓여진 하나하나의 텔레비죤수상기와 랭동기, 계단의 란간, 환자복과 실내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너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로고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은 하나와 같이 이곳은 사랑의 집이라고 격정을 터놓는다.

옥류아동병원,

그것은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사랑의 열도와 깊이를 알려면 누구든 여기에 들어와 중앙홀에 있는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웃음을 지으며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의 그 행복과 건강을 위해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지금껏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아동병원을 일떠세워주었다.

어찌 보면 그림전시회장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늑한 살림집에 들어선것만 같은 병원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동심의 꿈을 활짝 꽃피우며 건강을 회복해간다. 기관지천식을 앓던 아들이 아담하면서도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씻은듯이 병을 털었다는 동대원구역에 사는 한 어머니의 토로는 얼마나 우리 가슴 뜨겁게 하는것인가.

병원에 설치되여있는 아이들을 위한 란간, 어른들을 위한 란간을 보면 병원의 요소요소에 세심한 정을 기울이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에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진다. 병원생활로 학습과 지적성장에 지장이 갈세라 소학교실, 중학교실, 유치원교양실 등도 따로 꾸려주고 교양원들과 교원들도 보내주도록 하신 사랑은 그 얼마나 다심한것이고 액정텔레비죤수상기며 랭동기 등이 갖추어진 입원실들의 따뜻한 공기는 그 얼마나 가슴후덥게 하는것인가.

옥류아동병원은 정녕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해주신 나라의 꽃봉오리들을 위해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의 고결한 결정체이다. 하기에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옥류아동병원에 들어서는 이 나라 부모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목청껏 노래부르던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의 꽃봉오리들의 집-아동병원을 자랑합니다라고!

류경구강병원은 또 그것대로 감탄을 자아낸다. 은은한 실내조명과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하여 안온한감을 주는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최신식의 수십대 구강종합치료기를 볼수록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이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열과 정으로 인민사랑의 화원을 가꿔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드리는 충정의 꽃다발이며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더욱 밝고 창창할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번영하는 우리 시대의 축도이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사랑 하늘끝에 닿았거늘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에 이어 이 땅에 펼쳐질 사랑의 화폭, 기적의 화폭은 또 그 얼마이랴.

천만군민이여,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게 창조의 손, 애국의 손으로 어버이 당의 숭고한 뜻 받들어 행복의 꽃, 향유의 꽃을 더 많이 피워나가자. 사회주의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더욱 보람찬 삶을 누려나가자!

본사기자 박옥경

애국의 주로에 뿌려가는 고결한 땀방울

2013년 마카오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 우승한 김미경동무

얼마전 중국 마카오에서는 2013년 마카오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마라손, 반마라손, 미니마라손의 3개 종목경기가 진행되였다.

32번째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 우리 나라의 김미경선수가 출전하였다.

12월 1일 새벽 5시 경기가 시작되였다. 출발선을 박차고 선두에서 달리는 선수들속에는 자신만만한 기세에 넘쳐있는 김미경선수의 얼굴도 보였다. 선두대렬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지난 시기 경기전적이 좋은 케니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 선수들이였다.

다른 종목경기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마라손경기는 강의한 정신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김미경선수는 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자기의 전술대로 신심있게 달리고달렸다. 28㎞지점에서부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을 떨구고 앞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우승의 야심을 품고 30㎞지점까지도 꼬리를 물고 좀처럼 떨어질줄 몰랐던 케니아선수도 김미경선수의 뛸승의 신심을 조금도 흔들지 못하였다.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마침내 김미경선수가 2시간 36분 32초로 결승테프를 끊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말처럼 쉽게 이루어진 우승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 강령군의 평범한 로동자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여난 김미경동무가 마라손주로에 나서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그가 9살 나던 해 우리 나라의 정성옥선수가 에스빠냐의 쎄빌랴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룩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세계적인 강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1위를 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나도 정성옥선수의 뒤를 이어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딸이 되리라.)

이런 소중한 꿈을 안고 김미경선수가 강령군청소년체육학교에서 룩상을 시작한것은 10살부터였다. 나라에서는 그가 경공업성체육단 선수로 자기의 희망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평시에 말이 적고 속이 깊은 김미경선수는 국제무대에서 금메달을 쟁취할 야심만만한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훈련하였다. 하루훈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훈련장에 아낌없이 뿌려온 애국의 구슬땀은 헛되지 않았다.

김미경선수는 지난해와 올해에 진행된 국제룩상련맹-세계 25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국제룩상련맹-제26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또다시 국제경기무대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쳤다.

진정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불같은 애국의 열정이 낳은 또 하나의 승리의 소식이다.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체육인들이 김미경선수처럼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애국의 주로를 힘차게 달리고있으니 그와 더불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밝아올 체육강국의 래일은 얼마나 가슴벅찰것인가.

주령봉

체육단 빙상훼거감독들과 선수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국가종합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시대의 명곡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숙천청년과수농장에서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맹세를 담은 시대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농장의 여러곳에 노래가사를 게시해놓고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노래의 구절구절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대의 명곡에 대한 해설 및 보급사업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노래가 실린 당보를 가지고 어느 한 작업반에 내려간 농장일군은 위대한 당에 대한 찬가가 태여난데 대하여 격조높이 말하면서 인민생활향상의 직접적인 당당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른 작업반들에 나간 일군들도 종업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분출시켰다.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대의 명곡을 심장으로 부르며 더 높은 과일생산실적을 내기 위해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과학적인 쏘가리양어에 성공

수산성 양어관리국에서

수산성 양어관리국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양어관리국에서는 새로운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으로 올해 5~6월 알쓸이시기에 대동강상류에 자리잡고있는 양어사업소에서 알받이를 하여 수만마리의 새끼쏘가리를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어디서나 쏘가리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사업소들에서는 좋은 업지고기품종을 골라 생태학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잘 길러 새끼고기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푸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한평생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수산업과 양어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맛좋고 영양가높은 쏘가리를 많이 기르기 위한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산성 양어관리국에서는 선진과학기술과 경험에 기초한 우리 식의 쏘가리양어방법을 하루빨리 연구완성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처장 김철만, 지배인 한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최대한 발동하여 쏘가리양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농어과에 속하는 쏘가리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먹성이 강하며 특히 산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맹어의 하나이다. 알에서 갓 까나온 새끼쏘가리가 70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산 물고기를 잡아먹는 특성으로 하여 쏘가리양어에서는 새끼고기의 먹이해결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양어관리국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기술자, 기능공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많은 방안들에 대한 꾸준한 도입시험과정을 거쳐 어느 한 민물고기의 알깨우기시기를 20일이상 앞당겨 새끼쏘가리의 먹이로 리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새끼쏘가리의 먹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착상을 해내였다. 그것은 쏘가리양어에서 산 물고기를 대신하는 먹이를 해결한것이였다. 일명 먹이불임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에 쏘가리양어에 널리 도입되였는데 효과성이 대단히 높다.

양어관리국에서는 쏘가리양어를 대대적으로 벌리는데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알깨우기시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여 알깨우기률을 높이는 문제도 훌륭히 해결하였다.

주로 큰 돌과 바위들이 깔려있는 깊은 소에서 사는 쏘가리는 대동강상류의 석회암지대가 물에 잠기면서 생겨난 동굴들에 많이 서식한다. 대동강상류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강과 호수, 저수지의 물온도는 5월과 6월에 쏘가리알쓸이시기 기준 물온도보다 5~6℃가 낮기때문에 물온도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일군은 위대한 당에 대한 찬가가 태여난데 대하여 격조높이 말하면서 인민생활향상의 직접적인 당당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른 작업반들에 나간 일군들도 종업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분출시켰다.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대의 명곡을 심장으로 부르며 더 높은 과일생산실적을 내기 위해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공간돌붙이기공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축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천연석재인 화강석이나 대리석을 가공하여 기념비적건축물들의 벽이나 기둥에 붙임으로써 장식효과를 높이고있다.

돌붙이기공법에는 돌을 건물이나 구조물의 겉면에 철근으로 고정시키고 돌과 구조체사이의 공간에 몰탈을 채워넣어 돌과 콩크리트를 일체화시키는 뒤채움공법과 뒤채움을 하지 않는 공간돌붙이기공법이 있다.

뒤채움공법에 의한 돌붙이기공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콩크리트벽에서 나오는 석수에 의해 돌이 오염되는것으로 하여 돌겉면에 얼룩이 생기게 된다.

경영과정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은 제거하기 힘들고 건축물들의 미관상 치명적인 결함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돌붙이기방법이 공간돌붙이기공법이다.

이 공법은 돌과 구조체사이에 공간을 두고 돌을 띄워 고정시키기때문에 석수에 의한 돌오염을 막을수 있다. 또한 돌고정부분품에 의해 조립식으로 시공할수 있으며 시공속도가 빠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다.

따라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롯하여 돌을 붙이는 거의 모든 대상들에서 이 공간돌붙이기공법을 적용한다.

공간돌붙이기공법에는 구조체면에 고정부분품들을 설치하고 그에 의지하여 돌을 붙이는 방법과 골조형재를 설치하고 그에 의지하여 돌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

구조체면에 고정부분품들을 설치하고 그에 의지하여 돌을 붙이는 방법에서는 먼저 구조체겉면에 철물고정점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측량작업을 한다. 그다음 구조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확장앙카나사를 설치한다. 여기에 차례로 ㄴ형고정철물, 판형고정철물을 련결한 다음 2개의 판형고정철물에 판돌을 올려놓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쇠로 고정한다. 고정부분품들은 모두 불수강이여야 한다.

골조형재에 지지하여 돌을 붙이는 방법은 구조체와 돌사이의 공간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먼저 골조형재를 앙카철물로 구조체에 고정설치한다. 골조형재는 불수강으로 만든 ㄷ형강 또는 ㅁ형강으로 한다.

돌을 밑에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골조형재에 돌고정철물을 리용하여 붙인다. 돌을 다 붙인 다음에는 돌과 구조체사이의 보온층을 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사이의 이음줄을 면밀히 메워주어 비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리수훈

체육인가정의 긍지와 보람

신의주화학섬유공장체육단 책임감독 김광호동무의 가정

수산성 양어관리국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양어관리국에서는 새로운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으로 올해 5~6월 알쓸이시기에 대동강상류에 자리잡고있는 양어사업소에서 알받이를 하여 수만마리의 새끼쏘가리를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어디서나 쏘가리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체육단 롱구책임감독 김광호동무의 가정은 체육인가정으로 불리우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부부가 다 근 40년을 체육부문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체육선수들을 키워냈으며 자식들도 체육인으로 내세운 훌륭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하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김광호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마침 휴식일 저녁이여서 온 집안식구가 다 모여있었다.

후리후리한 키와 건장한 체구, 까만 머리칼… 김광호동무는 60을 가까이하는 나이였지만 온몸에 젊음이 넘치고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그는 흐뭇한 심정으로 모여앉은 집안식구들을 한명한명 소개해주었다.

안해 강연숙동무는 선수생활에 이어 교예체조감독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유능한 교예체조명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대령강체육단 교예체조책임감독이였고 아들 김현우동무는 같은 체육단의 축구선수로, 딸 김현심동무는 아버지와 한 체육단에서 전도유망한 롱구선수로 활약하고있었다.

김광호동무는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앉아 그동안의 훈련과 경기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주고받으며 체육인가정의 자랑을 꽃피워간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체육인이여서 그런지 경쟁심이 만만치 않다고 웃으면서 귀띔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누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퍽 인상적이였다.

《오빠, 우리 체육단 롱구선수들이 이번에 진행된 전승 60돐경축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컵을 쟁취하였어요. 이번까지 7련승이예요.》

야심만만하고 오돌차게 이야기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있던 오빠가 배포유하게 말하였다.

《축하한다. 우리 체육단 축구선수들과 교예체조선수들도 그 경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녔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세개의 우승컵자랑이 생겼구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승벽심이 섞인 자식들의 자랑이 오고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대로 자기가 맡은 체육종목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 행복한 체육인가정이였다.

우리의 눈길은 체육과 더불어 넘쳐나는 이 가정의 긍지와 자랑이런듯 번쩍이는 금메달들, 훈장들과 은정어린 선물증서들로 이어졌다.

바라보느라니 훌륭한 체육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이들부부가 피타게 탐구한 사색의 순간순간이며 쏟아부어온 열정의 세계가 어려왔고 대를 이어가며 체육으로 당을 받들고 어머니조국을 빛내여가려는 이 가정의 숨결이 보석처럼 빛나게 안겨왔다.

참으로 자랑많은 체육인가정의 즐거운 저녁시간이였다.

《결혼후 아들딸들이 태여날때마다 그들을 모두 끌끌한 체육인으로 키우리라 속다짐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가정의 모든 성원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체육인으로 되였습니다. 체육인이 되기 전에 참된 애국자가 되고 부강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것이 우리 가정의 룬리입니다.》

김광호동무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였다.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들이 더없이 돋보이고 자랑스러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철호

다음주에 진행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빙상호케이경기일정

다음주에 빙상판에서 진행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빙상호케이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녀자)
대성산:강계제1사범대학

9일(녀자)
수산성:장자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사자봉

10일(녀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수산성
강계제1사범대학:장자산
대성산:사자봉

11일(남자)
평양철도국:사자봉
수산성:장자산
대성산:김책제철련합기업소

12일(녀자)
강계제1사범대학: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사자봉:수산성
대성산:장자산

13일(남자)
사자봉:김책제철련합기업소
평양철도국:장자산
수산성:대성산

14일(남자)
평양철도국:김책제철련합기업소
장자산:대성산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세계평화의 선결조건

조선반도에 의연히 긴장한 분위기가 떠돌고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마주대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물리적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여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선제타격수단들과 병력을 전진배비해놓고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으며 지역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

조선반도정세는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전반적인 세계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평화보장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선결조건이며 기본고리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정세는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단합하여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핵전쟁의 위험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추구하고있는 목적은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 이곳을 발판으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나아가서 대륙으로 진출하자는것이다. 이 목적실현을 위해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은 자그마한 남조선땅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이것도 모자라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총포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리고있고 화약내가 짙게 풍기고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위험천만한것이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만도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주둔 미군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이 동원되고있으며 추종국가군대의 병력까지 투입되고있다.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무력에서 기둥으로 되고있는 최신 핵전쟁장비들도 동원되고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B-2A》스텔스전략폭격기가 미국본토에서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투하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지구상에서 적지 않은 군사연습이 진행되지만 조선반도에서처럼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처럼 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곳은 없다. 미국이 감행하는 전쟁연습은 단순히 연습을 위한것이 아니다. 우리의 면전에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다가 그것을 실천에 옮겨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자는것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수많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주동적인 대화제안을 내놓고 미국이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회수와 강도를 높이고있는것은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을 노린것이 아니다. 힘으로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그에 따르는 국방전략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군사적공갈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핵만능론에 기초한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중시의 국방전략에서 《핵무기고를 효률적으로 유지》할것이라고 하면서 《보다 소형화된 핵무기들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올해에 발표한 핵운영전략에 관한 새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전진배치할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적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보유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핵전쟁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배치에서 기본은 핵무기이다.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많은 핵무기와 운반수단들을 배비해놓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무장장비는 유럽과 중동지역수준을 훨씬 뛰여넘어 최대규모에 이르렀다. 핵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임의의 시각에 작전에 진입할수 있도록 항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하고있다. 공중전위주의 침략전쟁방식에 따라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타격비행대들을 일본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곳에 전개해놓고 출전대기상태에 두고있다.

여기서 미국의 첫째가는 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서 조선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핵전쟁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 핵만능론에 기초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세계제패전략의 침략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남조선이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여있고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지역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그것은 곧 주변나라들과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 주변나라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지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으며 인류는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셔야 한다.

조미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전쟁위험을 가시는것은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서로가 상대방을 겨누고있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미군이 철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미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가 없어지게 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한 두 나라 관계는 개선될수 없으며 그것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평화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이며 평화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것이다.

리 학 남

선제공격을 꾀하는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최근 미국이 그 누구의 《미싸일공동대처》의 미명하에 남조선괴뢰들과 미싸일대응능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미싸일대응능력위원회는 우리의 미싸일에 대처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작성하고 실지행동에 필요한 무기체계수립을 완성하며 작전계획을 제정한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2사단을 미국남조선련합사단으로 개편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반공화국선제공격기도의 발로로서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미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조선이 비핵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여있다느니,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떤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도 조미관계개선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할 기도밖에 없다.

미국이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공갈을 일삼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로 몰아가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얼마전에 피뢰들과 함께 벌려놓은 련합해상훈련은 핵전쟁도발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상전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부나부랭이들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입버릇처럼 외우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미싸일대응능력위원회를 설립한것은 모험적인 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이 완성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미싸일대응》이란 곧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전략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려놓는 미국이 미싸일대응능력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분석가들이 미싸일대응능력위원회설립은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가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문제에서 공동인식을 이루었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대응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이 검토가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고있으며 연구중에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2사단을 미국남조선련합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것도 스쳐보낼수 없는 심상치 않은 문제이다.

미국남조선《련합사령부》는 지난해에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2사단을 련합부대로 개편하는 문제를 상정시키면서 《북조선에 대한 강력한 억지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미국남조선련합사단이 남조선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양대가리 결어놓고 말고기 판다는 격의 서툰 장난으로써는 저들의 음흉한 기도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발표한 새 국방전략의 숨은 목적은 아시아의 다른 대국이 저들에게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추종세력들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국이 조작하려 하고있는 련합사단은 피뢰들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 깊숙이 끌어들여 잠재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써먹으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이 《동맹》강화를 떠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계속 추구한다면 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선군의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어째보려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적대세력들이 움쩍하기만 해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막강한 군력을 가지고있는 우리는 미국의 선제공격기도에 놀라지 않는다. 상대를 잘못 보고 덤벼드는자들은 파멸을 촉진하는 불소나기를 맞게 될것이다.

리 현 도

로씨야대통령 항공우주방어군 재무장계획에 대해 언급, 장거리 및 전선항공대를 발전시킬것을 요구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에 진행된 협의회에서 항공우주방어군의 재무장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미싸일련합부대들과 군부대들을 현대적인 대공미싸일종합체 《C-400》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항공우주방어군이 올해에 2대의 종합체를 넘겨받은데 이어 2014년에 또 3대를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마비르와 깔리닌그라드 등지에서 전파탐지기들이 고도의 전투준비상태에서 가동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제시된 계획에 따라 가까운 5년동안에 실제상 자기의 효파성과 믿음성을 립증한 또 7대의 전파탐지기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에 진행된 공군무력발전에 관한 협의회에서 장거리 및 전선항공대를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장거리항공대의 전망적인 항공종합체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장거리항공대의 비행기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항공기지전략핵무력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전선항공대의 전망적인 항공종합체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새 세대 추진장치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밝히고 그는 《Cy-25CM》 습격기를 포함한 전술전투기들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사망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5일 95살을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남아프리카대통령으로 있었으며 최근 몇달동안 폐감염증재발 등 건강상문제로 입원해있었다.

남아프리카정부는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며 6일부터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 조기를 띄우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 주장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2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발전된 나라들만이 핵에네르기를 리용할수 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언제인가 자기 나라도 핵에네르기를 생산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음모책동 비난

레바논대통령 미쉘 쑬레이만이 4일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의 고위성원이 암살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의 일환으로서 교파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며 적들의 음모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동아프리카공동체 수뇌자회의 진행

동아프리카공동체 수뇌자회의가 최근 우간다의 수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공동체성원국 국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통합을 다그치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새 동아프리카려권을 발급하여 리용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역나라 주민들은 2015년부터 단일한 려권을 지참하고 공동체성원국들뿐아니라 공동체밖의 나라들에도 려행하게 된다고 한다.

회의끝에 공동콤뮤니케가 채택되였다.

일본학계에서 당국의 새로운 법안채택 반대기운 고조

일본학계에서 당국의 그릇된 특정비밀보호법안채택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나고야대학과 쯔쿠바대학의 학자 31명이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가 중의원에서의 법안표결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성명은 비밀국가, 군사국가에로의 길을 여는 법안을 반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릿쿄대학과 호세이대학, 도쿄대학의 교수들은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법안이 모든 정보를 통제한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전권위임법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비밀보호라는것은 기만이라고 규탄하였다.

일본에서 당국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반대하여 시위

살림집가격 인상

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계속 뛰여올라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3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0월에 전국적인 살림집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5%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빈궁심화

네데를란드에서 많은 주민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한 가정이 66만 4 000세대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사고

네팔의 서부지역에서 1일 버스가 방향을 잃고 산밑으로 굴러떨어져 1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나이제리아의 잠파라주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길옆의 덤불속으로 미끄러져들어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자연피해

꾸바의 아바나시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3일동안 계속된 폭우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6개 구역에서 26동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201동이 파손되였으며 627세대가 집을 잃었다고 한다.

피해지역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 ✻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뜨라주에서 11월 30일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8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행방불명되였다.

✻ ✻

이란의 부쉐르주에서 11월 28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땅속 5㎞ 되는 곳에 있었다.

지진으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 ✻

에스또니아의 북부해안지역에 1일과 2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전기줄들이 끊어져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배들의 항행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 ✻

말레이시아의 빠항을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4일현재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

노르웨이의 북부지역에 4일 강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강풍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지고 전기줄들이 끊어져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또한 비행기와 렬차운행이 중지되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 지지

남아프리카정부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립장을 밝혔다.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발표된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중지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아프리카정부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군의 공습만행 규탄

아프가니스탄대통령 대변인이 11월 28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공습만행을 규탄하였다.

이날 남부지역에서 미군의 공습만행으로 1명의 어린이가 죽고 2명의 녀성이 부상당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주민들의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살인만행은 반미감정만을 증대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협조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나라들이 1일 공업상회의를 열고 공업분야에서 지역적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추동하여 빈궁을 청산하기 위해 지역나라들이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 ✻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두 나라를 련결하는 송전선을 늘이였다.

4일 수단대통령과 에티오피아수상의 참가밑에 개통식이 진행되였다.

같은 날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협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달탐사위성 발사

중국에서 2일 달탐사위성 《상아 3》호를 쏴올려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

위성은 서창위성발사쎈터에서 《장정-3》호(을) 운반로케트에 의해 발사되였다.

이 위성은 처음으로 달에 대한 연착륙과 달표면순시탐사를 실현하게 된다고 한다.

우주과학기술발전노력

가나에서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목적밑에 성능이 높은 새로운 천체망원경제작사업을 다그치고있다.

3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길이가 32m에 달하는 새 망원경이 우주과학연구사업에 도입되면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한다.

위성지상조종소 건설

볼리비아에서 첫 위성지상조종소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2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조업식이 진행되였다.

수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조종소는 20일에 발사될것으로 예견되는 통신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자료들을 수신 및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항구건설계획

나이제리아에서 항구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면 라고스주에 건설되는 새 항구는 부지면적이 90ha에 달하며 년간 400만 t의 짐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항구건설은 앞으로 4년내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수출증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10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9% 증가하였다.

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항공운수발전노력

케니아정부가 나라의 항공운수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3일 수도의 죠모 케니아타국제비행장에서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새 항공역사건설착공식이 진행되였다.

2017년에 이 항공역사가 완공되면 비행장의 년간 려객수용능력은 종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치렬해지는 로미사이의 힘겨루기

최근 로씨야에서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가 등장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있다.

《C-500》으로 불리우는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가 다른 미싸일과 차이나는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력한 신형미싸일의 개발과 관련하여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 반항공담당 부사령관은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 《C-500》이 로씨야국경에 접근하는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대답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에서는 2020년까지 10기의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 《C-500》을 군대에 취역시킬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이 사업은 2년내로 시작된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로씨야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럽미싸일방위망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지난해 미싸일방위체계의 1단계를 완성한 미국과 나토는 얼마전 로므니아에서 미싸일방위기지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가동하게 될 이 미싸일방위기지에는 《SM-3》요격미싸일들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나토가 작성발표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뉘여져있다. 1단계는 지중해와 그 주변바다들에 레이다체계와 요격미싸일로 장비된 함선들을 배치하여 다기능함선전투정보조종체계를 강화하며 2단계에서는 로므니아에, 3단계에서는 뽈스까에 요격미싸일들을 전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후 미싸일방위체계를 더 확대하여 2020년경에는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방어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계를 수립하자는것이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에 깔려있는 기도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을 위해 단계별조치를 일부 조절하고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은 유라시아대륙을 저들의 미싸일타격권안에 넣을수 있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미싸일, 핵무기에 의한 저들의 확고한 우위가 보장되게 될것이라고 여겨왔다.

미국은 야심적인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전지역에 대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것으로 광고하고있다.

미국이 이란의 장거리미싸일을 막기 위해 숱한 자금과 시간을 허비하며 유럽지역에 방대한 미싸일방위체계망을 구축한다는것은 론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는 엄연히 방어용이 아니라 로씨야를 비롯한 지역대국들을 견제, 압박하고 군사적패권을 쥐기 위한 공격용이라는것은 전문가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분석가들은 로씨야의 국경을 따라 전개되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의 핵공격능력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자국을 겨냥한것이라고 찍어서 말하였다. 그는 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를 겨냥한것이 아니라는 법적담보를 나토가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거절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명백히 로씨야의 미싸일잠재력과 핵잠재력을 무력화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앞에서는 로씨야와 미싸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느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말장난을 하고는 돌아앉아서는 대로씨야군사적 포위환형성에 열을 올리고있다. 자기 잔등에 칼을 박으려는 적을 멍청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로씨야는 자국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고있다. 신형대공미싸일종합체도 그러한 취지에서 개발되고 전개되고있다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로씨야는 항공우주방어체계 창설을 군건설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2020년까지의 국가무장장비계획에 따라 항공우주방어군을 무장시키는데 약 3조 4 000억Rbl(루블)이 지출되게 된다. 이것은 군대의 재무장에 할당되는 전체 자금의 약 20%에 달하는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항공우주방어군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보유률은 2015년에 가서 50%이상, 2020년에는 70%이상에 달하게 된다. 또한 2018년까지 나라의 각이한 지역들에 8개의 《워로네쥬》 형전파탐지소를 건설하고 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적들의 탄도미싸일공격을 막을수 있는 항시적인 전파탐지망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이밖에도 현대적인 대공미싸일-로종합체 《빤찌리-C1》과 《C-400》대공미싸일종합체가 군대에 편속 납입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패》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로씨야의 움직임에 서방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전 미국 워싱톤군비통제협회 연구파장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전략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는 로씨야와 중국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맞서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있다고 평하면서 미국의 정책가들은 미싸일방위체계추진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상대측의 미싸일타격력만 높여주어 미국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것을 아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우려가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로씨야를 신형무기개발에로 부추기며 군사적대결을 든장질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 전개에 매여달리는 한 로씨야의 군사적대응조치는 더욱 강경해질것이라고 외신들은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희

ㄱ-3119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